

한국 가족의 특성

김 종 옥

(전 연세대 교수, 현 가족치료연구소 소장)

1. 들어가는 말

한국 사회는 지난 30여년간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서구화에 따라 가족의 구조와 가족의 기능 이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가족 성원들간의 긴장 및 갈등을 야기시켰는데, 즉 변화에 적응하려는 세대와 저항하는 세대간의 갈등과 가족의 역기능이 심화됨과 동시에 가족간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역기능과 가족간의 갈등을 감소 또는 해결하는데 가족치료의 활성화와 한국 가족에 적용 가능하고도 가장 효율적인 가족치료 model의 개발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오늘날 변화하고 있는 “한국 가족의 특성”을 한국의 가족구조와 가족기능, 가족관계로 구분하여 고찰해 봄으로써 현대사회의 가족의 모습을 살펴보고, 가족문제의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효과적인 한국 가족 치료 model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되고자 한다.

2. 한국 가족의 구조

가족 구조란 변형되는 개방적인 사회 및 문화적 체계이다. 한국 사회는 지난 30여년간 급격한 사회변화를 맞이했으며 이로 인해 가족 구조의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의 가족은 전통적인 다세대의 확대 가족 형태가 붕괴되고 현대 산업사회의 요구에 맞춰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세대 핵가족의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 규모 역시 구성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를 “도시

가족(서울)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1958년의 5~6인 가족에서 1980년에는 4~5인 가족으로 축소된 것을 볼 수 있다.¹⁾ 또한 가족 유형이 새롭고 다양화해 진 것을 들 수 있다. 즉 현대 가족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 중 특히 무자녀 가족, 편부모 가족, 노인 가족, 독신 가족 등이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인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자녀 출산이 노동력의 확보를 의미하였으나 점차 산업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기계가 노동력을 대신하였고, 자녀의 다산(多産)은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생각과 1961년부터 실시된 가족계획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적은 수의 자녀만을 출산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가족의 규모도 축소된 것이다. 또한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주부의 취업률이 높아진 것도 가족 규모의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 더 나아가 아예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 가족, 일찍 자녀들을 출가시키거나 노부부끼리만 살기를 원하거나, 자녀들이 부양의 의무를 지지 않거나 하여 노부부들만이 따로 사는 노인 가족, 결혼하지 않고 혼자 단독으로 사는 독신 단독 가족 등도 현대 한국가족 구조의 변화되고 있는 특성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된 가족 구조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가족기능의 변화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핵가족 내에서 주부가 직업을 갖게되면 예전의 다양한 가족 구성원 속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자녀 양육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앞에서 도 잠시 언급했지만 산업화로 말미암은 노인의 지

1) 이동원, “도시가족(서울)에 관한 연구”, 『이대논총 제 39집』, 한국문화연구원, 1981

위 저하, 이에 따른 전통적 가족 제도의 기반 약화와 가족의 탈양육기에 있는 노인부양기능의 약화,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로 인해 노인부양인력 부재 현상 등으로 이제는 노인 문제가 하나의 커다란 가족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3. 한국 가족의 기능

가족은 사회의 존속과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구조의 변화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들이 타 제도에 흡수되거나 병합되어 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중요성이 상실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보편적인 가족의 기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가족 기능을 언급하기에 앞서 우선 보편적인 가족의 기능을 살펴보면, Murdock은 가족의 기능을 자녀 출산, 사회화 교육, 경제적 협조, 성적 욕구 충족이라고 하였고,²⁾ Lidz는 가족은 아동에 대해서는 신체 보호와 양육을 하며 동시에 아동들이 인격개발을 주도하고, 부부에게는 개인적인 만족감과 안정을 얻는 수단을 제공하며, 사회에 대해서는 새로운 성원을 배출해 내는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³⁾ 또, Ogburn은 가족의 기능을 성적 기능, 부양의 기능, 교육적 기능, 경제적 기능, 종교적 기능, 위안적 기능, 보호적 기능, 사교적 기능으로 분류하였다.⁴⁾

이와 더불어 한국 가족의 기능을 한국 정신문화원에서는 경제적 공급 기능, 자녀양육 및 교육 기능, 보호 기능, 정서적 지지 및 치료 기능, 휴식 및 오락의 기능, 생식의 기능으로 가족 형태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⁵⁾

그러나, 기술 발전과 산업화를 동반하는 급속한 변화가 전통적 가족 기능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 중요성을 잃지 않고 있는 가족의 기능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여 집안을 유지시키는 일과 집안 사람들간에 친밀한 인간관계를 조성시키는 역할인 정서적 기능이라 할 것이다. 즉, 이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산업화가 다른 제도들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야기시켰고, 이에

따라 이전 확대가족에서 행하던 기능들을 전문적으로 맡게 되어 가족은 주로 자녀를 출산, 양육하고 가족 성원들간의 정서적 유대를 통한 만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대 한국사회는 경제적 발전을 목표로 산업화에 전진해 왔고, 개인의 능력 및 업적을 보편적으로 평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따뜻한 인간애를 상실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늘 따라다니는 긴장감과 불안감으로 현대인에게는 이해 타산적이며 긴장되어 있는 인간관계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가족을 통해 해소하고 휴식을 취하며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능이 강조될수록 이에 수반되는 위험이 커지게 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 가족제도에서는 성과 연령에 따른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서 가족의 안정성이 유지되었으나 현대 산업사회로 오게 되면서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가족 유형이 변화하고 있고, 이에 가족 안정성의 기반이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으로 바뀌어 갔는데, 만약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가 약화되면 즉, 상대방의 정서적 지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사회생활에서 받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상대방에게 해소하고자 할 때 갖게 되는 갈등에 직면하게 되면, 가족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가족해체의 위험까지도 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역기능적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가족치료자 및 가족상담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 한국 가족의 관계

가족관계란 가족성원들이 서로 반복하여 상호 작용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가족원간에는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와 관계를 맺는지에 관련된 보이지 않는 틀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가족관계인

2) B. Adams, The Family :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 Co., 1980

3) R. E. Anderson, I. Carter,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4) 유영주, 신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1990

5) 김한초 외 3인, 한국 가족의 표준모형 개발,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1986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족관계의 유형은 가족에 따라 상이하며 각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가 증폭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한국 가족의 구조나 기능이 현대 사회로 오면서 핵가족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전통적인 모습에서 서구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국 유교 윤리에 기초하는 독특한 가족관계 문화와 친족집단과의 유대관계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만의 독특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가족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라는 하위체계에 따라 구분되고 있는데, 이 외에도 한국사회의 가족관계에서는 고부관계와 친인척 관계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한국사회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의 특징 및 이에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부부관계

부부관계는 성인 남녀가 만나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여 기능하도록 유지하고,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인간관계이다. Minuchin은 부부관계를 체계적 입장으로 보면서, 가족이 기능하는데 필수적인 하위체계이고 특정한 과업과 기능을 갖고 있으며, 부부는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상대방의 기능을 지지하고 양보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보완적인 유형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하였다.⁶⁾ 또한 Pollak은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정서적 기능, 성적 기능, 경제적 기능, 자아 강화적 기능을 잘 수행함으로써 부부가 상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⁷⁾

그러나, 한국사회의 부부관계는 서구의 부부중심 가족과는 다르게 구조적으로는 부부중심의 핵가족을 보이고 있으나 기능적으로는 부부관계와 함께 부모자녀관계 및 혈연관계가 중심이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서구의 부부중심 가족은 서로의 일상생활이나 부부간의 애정문제, 성적인 만족이나 부부 각자의 관심사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부부사이에는 그보다는 자녀 문제나 두사람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대화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부부간의 의사소통 기능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또한 가치관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 향상 등으로 부부간의 역할 구분이 완화되고, 가정에서의 역할 분담 등에 있어서도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전통적 사고의 잔재로 남성이 가사나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편이고, 이로 인해 취업 주부의 경우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하는 심각한 역할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다.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의 부부 중심의 핵가족에서는 만약 가족 내에 어떤 위기가 발생하여 부부간의 결속을 유지시켜 주는 끈이 약화되면 쉽사리 와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배우자 외에도 자녀, 친척 등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부부의 위기가 즉시 가족해체를 이끄는 않지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부부간에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한 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역기능적 요소를 줄여나가 안정된 가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 부모자녀관계

자녀의 출생으로 가족은 새로운 관계를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양육을 통해 자녀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화시키는 과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사회로 변화하면서도 여전히 가족의 자녀출산 및 양육 기능의 중요성이 남아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리 자녀의 수가 줄어들고 사회화를 담당하는기관이 다양해짐에 따라 자녀에 대한 기대도 바뀌고 부모의 권위나 역할도 변화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한국가족이 부부중심의 핵가족이라고는 하나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고, 더구나 적은 수의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아이만을 위한 이기적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아동기 학생의 과중한 과외 학습, 부모의 과잉 애정으로 빚어진 대학 입시 부정 등 심각한 사회 문제까지 초래

6) S.Minuchin, Families & Family Therapy, Harvard Uni. Press, 1974

7) Pollak, Otto, "A Family Diagnosis Model", Social Service Review, March, 1960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늘날에는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확고한 권위가 점차 약화되고, 융통성있고 합리적인 권위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모 역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가족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인 사회에도 지도자가 있듯이 가족에게도 부모와 자녀의 확실한 권위와 분화된 역할이 있음을 간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부모의 권위가 점차 약화되면서 부양의 의무를 받지 못하여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 발생하는 등 노인문제조차도 과급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 속에서 경제적 빈곤과 심리적 소외감을 갖고 있는 노인들의 문제를 현명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복잡하고 급속히 발달하는 오늘날 현대 사회는 세대차가 점차 심화되고, 이에 따라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되었다.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다양해짐에 따라 아이들은 집에서 습득한 것과 밖에서 경험한 것 사이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한 가치간의 갈등은 부모와의 세대차를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도시 핵가족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전통 확대가족 속에서의 경험적 지식을 물려받을 기회가 줄어들어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가 부모자녀관계는 전통적인 것과 발전하는 것 사이에서의 가치관과 역할의 혼돈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자녀의 자율성을 성장 발달 시킬 수 있도록 도우며 자녀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함과 동시에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3) 형제자매관계

자녀들은 형제자매관계를 통하여 협동, 협상, 경쟁 그리고 희생하는 방법을 배우으로써 사회화를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즉, 형제자매관계를 통해 가정 밖에서 친구와 동료 집단을 만들고 자신들의 규칙에 복종해야 하면서도 체면을 유지하는 방법,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 또는 극심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고삼병과 같은 부모들의 맹목적인 욕구충족이 자라나는 새세대에게 장애를 주는 경향이 많아지게 되었다. 특히, 여러형제 중 맏자녀인 경우 이들에게는 부모들의 지나친 기대로 인해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자신의 또래집단에 비해 가족원에 대한 책임이 가중되기도 한다.

형제하위체계의 또다른 중요성은 형제가 없는 경우 명백하게 나타난다. 근대한국 사회에서 “한자녀 키우기”를 주장하게 되면서 외아들, 외동딸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려서부터 성인의 세계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게되므로 조숙한 발달을 하게되며 또래집단에서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들은 자율성 발달, 타인과 협동하고 경쟁하는 능력 등의 발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와같은 형제하위체계의 특징을 이해하여야만 이들의 형제자매관계의 향상 그리고 사회화의 향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 보았듯이 현재 한국 사회의 가족은 전통적 사상과 현대화의 물결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 그 속에서 많은 갈등과 역기능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사회 구조적으로는 서구의 근대사회를 지향해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형태도 핵가족화되고 다양해 지고 있으나, 이념적으로는 아직도 전통적인 가치관 및 생활양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이 전통적으로 수행해 오던 기능 가운데 사회가 완전히 대신해 줄 수 없는 기능들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고, 핵가족 자체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사회의 제도적인 자원을 도입하여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가족간의 갈등과 역기능을 해소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며 따라서 한국 실정에 맞는 가족치료의 model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